

정론

인민의

10월

높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환희가 넘치고있다.
내 조국의 역사에, 우리의 생활에 너무도 의의깊은 이 10월은 온 나라를 기쁨과 격동으로 끓게 하는 새 소식들이 편이어서 전해지고있다.

위성과학자주력지구에 이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성대한 준공식과 새집들이경사가 만사함을 흥분시키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완공된 연봉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신 혁명활동소식이 보도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건설을 발기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경기아름다운 연봉호기수에 터전도 몸소 잡이주신 연봉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후세에 길이 전할 시대의 걸작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도 평양의 새 육아원과 애육원도 자기의 어린 주인공들을 받쳐 문 문을 열게 되었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한 5월 1일경기도 준공의 날을 기다리고있다.

하나하나가 다 눈이 부시도록 희한하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몇몇이들이다. 그 훌륭한 가지가지의 자태에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다 실려있고 그 모든것이 한데 어울려 안겨주는 환희와 격정이 무한한 행복과 영광으로 심장을 울리게 한다.

당을 노래하는 우리의 10월,
이 눈부신 10월에 인민은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있다.
이 10월에 우리는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함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으로 적게 된다.

중요한 계절의 10월에 아름이 별도로 인민에게 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름을 이겨내며 담을 종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그야말로 눈부신게 호뜻한 우리의 10월이다.

반백여는 금메달과 탐욕공화국의 필적임으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장하고도 미더운 우리의 체육인들이 뜻깊은 이 달의 시작을 얼마나 멋있게 맞이했는지, 불굴의 정신력과 비상한 창조력으로 경제전선이 약동하게 하고 수도의 거리들을 더욱 환히 밝히게 한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의 혁신소식은 또 얼마나 10월의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는지. 뜻깊은 10월 10일, 막을 내린 그날까지 온 나라를 흥성거리게 하던 전국도대학중체육대회-14의 여운 또한 지금도 눈앞에 방불하다.

그런데 또 오늘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울통과 황홀한 멋쟁이건축물들이 주인들을 반겨맞는 경사가 펼쳐지니 우리의 10월은 복이 넘치는 10월이다.

《별이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아직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려왔던 집과 새 집을 받고보니 이런 희한한 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떨어진 사회주의문명, 부귀영화의 복이 너무나도 곱만 같이 밤에도 잠 못 이루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이 자기들의 진심을 이렇게 터놓고있다.

건축물이 눈부시게만 해서 아니라 이런 진하고진한 감정의 눈물, 불같은 감사의 것이 딱 차르르기에 더욱더 눈부시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10월인것이다.

해빛같은 당의 은성에 모뎀여 조선로동당 만세! 를 심장으로 터치는 그들모두의 머릿위에 선홍색으로 눈부신 당기발이 나뭇가지에
그 기발의 유정한 펄럭임소리와 함께 우리의 귀가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

심장의 고백과도 같이 넋을 파고드는 노래 《당기에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구절은 참으로 오늘의 우리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듬고 엮은 명구들의 명구인 것만 같다.

눈부신 자태!
이 나라 천민의 아들딸들이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을 《눈부신》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우리의 현실을 과연 금동시대의 어느 어문학, 어느 철학으로 명쾌하게 설명할수 있었는가.

홍콩하고 최한한것들을 보면 눈이 부실 정도라고 흔히 말해왔지만 이제 보니 눈부심이란 그림으로 그릴수도 없고 그 어떤 선물로도 만족할만 하게 얻을수 없는 그런것이구나. 오직 마음으로부터 불수 있는 심장으로만 느낄수 있는것이 다름아닌 눈부신 자태임을 우리 오늘 똑똑히 알게 되었다.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통해야만 느끼는 현상, 심장의 빛깔과만 관련된 마음의 환희가 바로 눈부신것이다.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주체의 기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역사를 써 온갖 경난을 다 이겨내며 승리만을 펼쳐 온 우리 당을 불러 인민은 얼마나 많은 영예로운 칭호들을 혁명의 년대기들에 아로새겼던가.

주체제의 혁명적당, 강철의 당, 불패의 당, 로속하고 세련된 당, 백전백승하는 당, 위대한 항도의 당...

그 모든 칭호들중에 어머니 우리 당이라는 친근한 부름이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정답고 친근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로 간직되어있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고있고 믿고 어려운 현실로 인정하고있다.

천만자식을 한몸에 안아 행복을 주고 영광을 주고 운명을 맡까지 보살펴주는 파사로운 줄,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고마운 당으로 말하게 되었다.

얼마나 크나큰 격동이며 영예인가.
어머니라 불러주는 우리 당의 눈부신 자태,
그것은 인민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대한 수호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헌신적인 부처자, 인민을 이끌어가는 인민의 모든 꿈을 가장 빛나게 하고자하는 강위력한 항도자로 안겨오는 조선로동당의 거룩한 모습이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애지중지하는 그 품이 있어 이 땅에 세계는 있어도 그늘진 운명은 없다.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그 시책에 따라야 이 땅에 인민의 세상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하다. 고난과 역경이 겹칠수록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붙여도 현 실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자기의 손길을 땅은 곳마다에 친지개벽을 일으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경들을 편이 펼쳐지고있다.

오늘날 우리 당의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 그것은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 있고 날을 따라 변모되는 우리의 생활에 있으며 보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우리의 색색한 발전속에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눈부신다고 말하는 이 10월의 경사들이 하늘땅을 울리는 만세소리와 더불어 온 우주에 그대로 전하고있다.

정녕 10월의 눈부심은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뿜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빛발이다.

세기를 이으며 빛내어온 위대한 승리로 눈부시고 시대와 역사만이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으로 눈부시고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해빛같은 은덕으로 눈부신 조선로동당이여!
그대 위대한 항도의 손길아래 이 땅이 세기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인민은 최고의 존엄과 최상의 영광, 최대의 행복을 맞이하고나서 조국과 인민은 그대 눈부신 자태를 격경속에 우러르며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여, 영광의 이 10월에 그대의 천만아들딸들이 사가 드리는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영광을 주고 운명을 맡까지 보살펴주는 파사로운 줄,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고마운 당으로 말하게 되었다.

얼마나 크나큰 격동이며 영예인가.
어머니라 불러주는 우리 당의 눈부신 자태,
그것은 인민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대한 수호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헌신적인 부처자, 인민을 이끌어가는 인민의 모든 꿈을 가장 빛나게 하고자하는 강위력한 항도자로 안겨오는 조선로동당의 거룩한 모습이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애지중지하는 그 품이 있어 이 땅에 세계는 있어도 그늘진 운명은 없다.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그 시책에 따라야 이 땅에 인민의 세상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하다. 고난과 역경이 겹칠수록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붙여도 현 실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자기의 손길을 땅은 곳마다에 친지개벽을 일으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경들을 편이 펼쳐지고있다.

오늘날 우리 당의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 그것은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 있고 날을 따라 변모되는 우리의 생활에 있으며 보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우리의 색색한 발전속에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눈부신다고 말하는 이 10월의 경사들이 하늘땅을 울리는 만세소리와 더불어 온 우주에 그대로 전하고있다.

정녕 10월의 눈부심은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뿜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빛발이다.

세기를 이으며 빛내어온 위대한 승리로 눈부시고 시대와 역사만이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으로 눈부시고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해빛같은 은덕으로 눈부신 조선로동당이여!
그대 위대한 항도의 손길아래 이 땅이 세기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인민은 최고의 존엄과 최상의 영광, 최대의 행복을 맞이하고나서 조국과 인민은 그대 눈부신 자태를 격경속에 우러르며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여, 영광의 이 10월에 그대의 천만아들딸들이 사가 드리는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2

심장의 격동없는 이 그 눈부심을 마주할 수 없다.

우리 인민에게 10월은 과연 어떤 달이던가. 위대한 당을 위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선물을 고르고받들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하고 이 땅위에 피어나는 천만꽃들로 축원의 꽃바구니를 엮어야 하는 그런 달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그 10월에 마음속에 품어안고있는 충정의 맹세, 심장을 바쳐안아온 보답의 열매들을 드리기도 전에 어머니 우리 당이 천만꽃들을 들어 마련한 귀한 선물, 희한한 금방식들을 가슴에 벽차도록 받아들인다.

우리가 갖고보면 그 많은 10월들이 그렇게 울려다진다.

당시 창건되어 세번째로 맞이한 10월, 건국의 초행길에서 한판의 자금이 귀중하던 그때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한 교육의 최고전당에 훌륭한 새 교사를 마련하였다. 주제 37(1948)년 10월 10일 성대한 행사와 함께 준공예식을 겸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새 교사,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생활에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마련한 첫 창조물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때로부터 60여년 세월이 흘러 장산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오늘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것은 10월을 맞을 때마다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행복과 격정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천만뜻밖에도 잃고 피눈물 속에 맞았던 19년전의 10월에도 우리는 친근한 부름이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정답고 친근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로 간직되어있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고있고 믿고 어려운 현실로 인정하고있다.

천만자식을 한몸에 안아 행복을 주고 영광을 주고 운명을 맡까지 보살펴주는 파사로운 줄,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고마운 당으로 말하게 되었다.

얼마나 크나큰 격동이며 영예인가.
어머니라 불러주는 우리 당의 눈부신 자태,
그것은 인민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대한 수호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헌신적인 부처자, 인민을 이끌어가는 인민의 모든 꿈을 가장 빛나게 하고자하는 강위력한 항도자로 안겨오는 조선로동당의 거룩한 모습이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애지중지하는 그 품이 있어 이 땅에 세계는 있어도 그늘진 운명은 없다.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그 시책에 따라야 이 땅에 인민의 세상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하다. 고난과 역경이 겹칠수록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붙여도 현 실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자기의 손길을 땅은 곳마다에 친지개벽을 일으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경들을 편이 펼쳐지고있다.

오늘날 우리 당의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 그것은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 있고 날을 따라 변모되는 우리의 생활에 있으며 보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우리의 색색한 발전속에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눈부신다고 말하는 이 10월의 경사들이 하늘땅을 울리는 만세소리와 더불어 온 우주에 그대로 전하고있다.

정녕 10월의 눈부심은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뿜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빛발이다.

세기를 이으며 빛내어온 위대한 승리로 눈부시고 시대와 역사만이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으로 눈부시고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해빛같은 은덕으로 눈부신 조선로동당이여!
그대 위대한 항도의 손길아래 이 땅이 세기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인민은 최고의 존엄과 최상의 영광, 최대의 행복을 맞이하고나서 조국과 인민은 그대 눈부신 자태를 격경속에 우러르며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여, 영광의 이 10월에 그대의 천만아들딸들이 사가 드리는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영광을 주고 운명을 맡까지 보살펴주는 파사로운 줄,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고마운 당으로 말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의 달, 이 10월에 태어난 인민의 살림집과 발전소, 저수지와 갈문은 그 얼마나 고 간석지와 계류소, 다리들은 또 얼마나든가. 사람들의 웃음꽃 만발한 지하명승 풍문대굴도, 수도의 중심에 멋들어진 새 모습으로 일떠선 국립연극극장도, 값지고 맛좋은 료리들로 이름난 옥류관의 료리 전문식당도 10월과 함께 인민의 것으로 되었다.

인민의 재부로 가득찬 이 땅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이런 10월의 노래가 있고 이런 10월의 사연이 있는것이다. 어느새 우리 인민에게는 10월이 제일 큰 선물을 받아안는 달, 변이 나는 달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시대에 10월의 의미는 더 뚜렷해지고 더 강렬해지고있다. 양각도에 새로 건설된 체육촌을 비롯하여 두해전 10월에 일떠선 창조물들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변함없이 이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또다시 가슴지며 제법하게 하였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로 장비된 평양산원 유전중앙연구소가 그해 10월에 자기의 존경을 신로하였듯 우리 생활에 정서와 활력을 더해주는 통일거리운동센터가 문을 열고 만경대유회장과 대성산유회장이 인민의 문화휴식지로 몰라보게 전변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 문명의 서쪽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후 인민의 가슴 가슴을 부풀게 하며 몸과 같이 황홀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습마구락부가 일떠섰다. 누구나 그 희한한 창조물들앞에서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될 눈부신 태양을 그려보았다.

자기의 생일마저 인민을 위해 바치는 당, 변함없는 헌신으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이 어머니의 지극한 헌신의 역사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본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유서깊은 전기가이다.

우리는 왜 10월에 그토록 많은 인민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는가. 한해에 달은 맑아도 어이하어 이 10월에 그토록 중요하고 많은 약속을 엮고 그 약속을 어겼을지 지키는데서 남다른 보람과 만족를 찾았기인가.

그것은 어머니이기때문이다. 자기의 생일에도 조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싶고 바로 자식들을 안겨주는 사랑과 정에서 무조건 바랄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찾는 것이 다름아닌 어머니인것이다.

어느 시인이 썼듯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찾을수 없는데다가 당을 한없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다.

그 어떤 찬양이나 자그마한 대가로 바랄수 없게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는 내성에서 더없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다.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하여 더욱더 뜨겁게, 참으로 강렬하게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왜 10월에 그토록 많은 인민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는가. 한해에 달은 맑아도 어이하어 이 10월에 그토록 중요하고 많은 약속을 엮고 그 약속을 어겼을지 지키는데서 남다른 보람과 만족를 찾았기인가.

그것은 어머니이기때문이다. 자기의 생일에도 조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싶고 바로 자식들을 안겨주는 사랑과 정에서 무조건 바랄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찾는 것이 다름아닌 어머니인것이다.

어느 시인이 썼듯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찾을수 없는데다가 당을 한없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다.

그 어떤 찬양이나 자그마한 대가로 바랄수 없게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는 내성에서 더없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다.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하여 더욱더 뜨겁게, 참으로 강렬하게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왜 10월에 그토록 많은 인민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는가. 한해에 달은 맑아도 어이하어 이 10월에 그토록 중요하고 많은 약속을 엮고 그 약속을 어겼을지 지키는데서 남다른 보람과 만족를 찾았기인가.

그것은 어머니이기때문이다. 자기의 생일에도 조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싶고 바로 자식들을 안겨주는 사랑과 정에서 무조건 바랄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찾는 것이 다름아닌 어머니인것이다.

어느 시인이 썼듯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찾을수 없는데다가 당을 한없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다.

그 어떤 찬양이나 자그마한 대가로 바랄수 없게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는 내성에서 더없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다.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하여 더욱더 뜨겁게, 참으로 강렬하게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왜 10월에 그토록 많은 인민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는가. 한해에 달은 맑아도 어이하어 이 10월에 그토록 중요하고 많은 약속을 엮고 그 약속을 어겼을지 지키는데서 남다른 보람과 만족를 찾았기인가.

그것은 어머니이기때문이다. 자기의 생일에도 조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싶고 바로 자식들을 안겨주는 사랑과 정에서 무조건 바랄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찾는 것이 다름아닌 어머니인것이다.

어느 시인이 썼듯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찾을수 없는데다가 당을 한없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다.

그 어떤 찬양이나 자그마한 대가로 바랄수 없게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는 내성에서 더없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다.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하여 더욱더 뜨겁게, 참으로 강렬하게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왜 10월에 그토록 많은 인민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는가. 한해에 달은 맑아도 어이하어 이 10월에 그토록 중요하고 많은 약속을 엮고 그 약속을 어겼을지 지키는데서 남다른 보람과 만족를 찾았기인가.

그것은 어머니이기때문이다. 자기의 생일에도 조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싶고 바로 자식들을 안겨주는 사랑과 정에서 무조건 바랄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찾는 것이 다름아닌 어머니인것이다.

어느 시인이 썼듯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찾을수 없는데다가 당을 한없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이다.

그 어떤 찬양이나 자그마한 대가로 바랄수 없게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는 내성에서 더없는 만족과 기쁨을 찾는것이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다.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하여 더욱더 뜨겁게, 참으로 강렬하게 절감하고있다.

는 길에 펼쳐와 승승차로도 모자라 풍광사나운 바다길을 자그마한 목선이 헤치기도하고 구름한 하늘까지 주름잡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원수님이 아니신가.

때로는 흘러내리는 땀방기도 땀을냄을 하지 않고 먼지날리는 건설장의 계단을 바베도 오느라리고 때로는 세차게 휘뿌리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막으며 설계도면까지 그려 지도해주신 우리 원수님.

왜 눈부신 10월의 창조물들앞에서 우리 인민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는가. 왜 세 요람의 주인공들은 희한하게 꾸러진 살림집에서 이 밤도 원수님 생각으로 잠 못 드는것인가.

그것은 인민을 위해 불타는 위대한 심장의 빛발이 우리의 눈부신 창조물마다에 어렸기때문이다.

대소한의 강우위가 강산을 열구던 올해의 1월을 잊을수 없다.

사람들이 아직도 단잠에 든 그 이른 새벽 국가과학원의 한 책임일꾼을 전화로 찾아주시니 우리 원수님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연을 말씀하시며 첩히 구상하신 새 주택지구의 이름에 대한 일꾼의 의견도 물어주시고 위성이라는 이름이 정말 좋은데 일꾼의 대답을 기쁘게 들어주시며 이제 거기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일꾼은 끝내 참고있던 오열을 리뜨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한밤을 꼬박 새우시고 또 여기까지 나오신단 말입니까. ...》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였다.

사연은 그 새벽부터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10월의 창조물들을 위해 바치신 소고와 헌신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었는가.

바로 일떠세운 건설대상들의 터전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매 대상들을 바친것이 있었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수 있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

일꾼들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정말 사려깊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정도자가 평범한 교육자들의 살림집에 놓을 가구들의 자라지켜 보이도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 보시러 나오시고 짧은 시간에 끝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또 찾아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떠오르는 불길이고 그 빛같은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부귀영화, 행복넘친 인민의 밝은 웃음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이 마치고 닳고 벗을 아로새긴 붉은 기록을 성스러운 당기로 추켜들게 하시던 바로 그대에 벌쳐 엄숙히 섰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행군천리로 한평생을 수놓아오시며 이 땅의 방방곡곡에 울리신 인민행렬치의 기적소리로 이어져왔다. 오늘 그것은 닳고 벗이 주는 시간조차도 초월하는 무한한 헌신의 열, 시련이 닳칠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불길의 열, 천리만리도 단숨에 달려가 인민의 모든 행복을 남기지 안아오려는 희망의 열로 더 높게 승화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언제나 사랑으로 안겨오는데 어머니당이다.

빛과 열이 없는 태양이란 생각할수 없듯이 인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조선로동당의 붉은기도, 당이 펼쳐는 백전백승도 생각할수 없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우리 당의 생명력이며 당의 미래이고 승리이다.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의 조선로동당이다. 인민을 위한 헌신적목마로 하여 날로 더욱 승승차주하듯가는 바로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요 영원한 승리의 합법적정이다.

그때의 정은 인민만이 앓다. 하기에 인민은 당의 모습을 눈부신 자태로 노래부르고있다. 눈부신 자태.

그것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의 최고모습을 위대한 어머니의 태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부터 인민이 터치는 최고의 언어, 격정의 단면이다.

참으로 우리 당의 눈부신 모습은 우리 원수님의 열의같은 인민사랑의 세계에 광원을 둔 위대한 빛발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눈부신 자태로 새겨진 당, 자기의 당을 언제나 눈부신 존재로 우러르며 절대적으로 따르는 이런 인민을 당할 힘이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작성하고 시행하는 모든 지침의 기초에는 반드시 인민성이 놓여있다. 인민성은 우리 당과 군대와 국가의 성격을 지배하는 기본인자이다. 우리는 늘려를 통하여 인민성을 기쁘게 인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당과 군대는 필승불패한다는 진리를 확고하였다.》

이제 한해만 지나면 우리 당의 역사는 어언 70년에 이르게 된다. 7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면 10년이 일곱번이나 지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위대한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의 그 활력과 열정은 인민의 운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에 아름다우며 뿌리를 두고있다. 세상이 열백번 바뀐다 해도 거기에 인민에게 세상만물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는 무조건고 성스러운 사명을 드림없이 내세우기에 조선로동당에는 영원히 쇠화할 일없다.

우리 당에 있어서 모든것은 끝없는 시작이고 끝없는 절정이다. 이런 활력이 넘쳐있는 조국, 품이 넓고 포부가 큰 땅이 있어 강위력한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사려깊은 보살핌은 오늘도 끝없이 지금 이 시각도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는 또 새바람이 경쟁적으로 일떠서고있다.

당은 오늘도 인민을 위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며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고있다.

서사시

굽이치라 청천강이여!

-이 서사시를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드린다-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장

1 아침노을이 불란다 굽이치는 푸른 강물도 키를 다루며 쫓는 언제들도 한빛으로 물들어 붉은 노을속에 안기는가

태양이 누리에 펼치는 아름다운 노을에 휩싸여 환희의 물보라 날리는 청천강 10개의 언제가 일시에 솟구쳐 오르는 전변의 대하 창조지 흐름이여

문명강국의 명마루에로 딛고오르는 행복의 계단인듯 강굴기따라 층층이 들어앉은 계단식발전소들을 바라볼수록 이 가슴에 젖어드는 뜨거운 생각

오랜 세월 이 청천강을 늘 마음속에 안고 계시며 웅장하게 일떠서는 이 언제들에 억연 드높지 않을 초석을 놓아 주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어디 다 말할수 있으랴 그처럼 물이 맑아 청천강으로 불리워온 조국의 이 강을 인민의 재부로 빛내주시며 펼친 신사색 해쳐오신 헌신의 그 자욱자욱

어려와라 당 제3차대회에서 청천강 그 이름을 부르시며 전기강의 휘황한 태양을 그려 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어

그 어느해인가는 발전소개발도를 보여주시며 계단식으로 막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물고기길도 꼭 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그 념원 한시도 잊은적 없으신 우리 장군님 힘겨운 람림산발에 개척의 첫 자욱을 새기시고 회천발전소건설장소를 찾았으실 때마다 회천언제야애 뻗어간 청천강을 정깊이 바라보시었어라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낼수 없다고 청천강에 하루빨리 계단식발전소를 건설하여 락원의 강, 보배강으로 되게 하자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어라

아, 온 나라 강산에 울려 퍼진 불같은 애국의 호소여 청천강전역의 사랑하는 전사들을 믿음과 정으로 모두 품에 안아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는 백두령강의 부름이어

얼어붙은 강변에 불바람이 터졌다 차디찬 북방의 눈보라를 눌러던고 산악처럼 일떠선 화불의 대오 착암기소리 발파소리 높뛰는 심장들에선 결사의 맹세가 우뢰치는 소리

온몸이 땀주머니가 되어 더운 길을 내뿜는 모습들 여기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아니구나 회천전역의 낮익은 영웅대장장, 착암명수

장군님 그어준 돌격로따라 회천속도를 안고 달려온 돌격대원들 황포탄 자연의 도전 막아서는 시련은 그 몇몇 고비 허나 비고도 폭풍쳐도 그 맑음을 흐리지 않는 청천강처럼

어느날 한모습 깨끗한 광시와 의리에 사는 한 모습이었거니 그 대오속엔 있구나 일찌기 회천의 물길골에 그리움의 별 북두칠성을 새기어 놓고 장군님을 그리며 기적을 펼친 자랑높은 련단의 전투원들

회천1호, 2호발전소에 이어 청천강에 일떠서는 10개의 발전소 이들이 맑은 회천6호발전소는 수령님께서 수십년전 자리를 잡아 주시며 《림흥발전소》라 그 이름 지어주신 발전소

향산의 풍치가 더 아름다와지게 청천강에 림흥발전소를 먼저 세우 자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 그 얼마나 로고를 바치셨던가 변치 않으리 끝까지 지키리 수령님을 우러러 붉은 기록에 없고 나신 전사의 서약

무섭게 덮쳐드는 강물은 벌써 3차례나 가물막이 뚝을 허물고 사슴치는 물속에서 누군가의 웨침 소리 -물러설 길은 한치도 없다 열백번을 다시 일어나 가자 수령님 부르시는 승리의 고지 에로!

드디어 사나운 물머리를 휘어잡고 만세의 함성 터칠 때 청천강이여 너는 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무한한 힘 참된 의리와 충정으로 분출하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정신력을

원수들의 전쟁연습으로 불기둥이 솟구쳐오르는 남해를 돌아 서해로 서해로 불장난에 미쳐날뛰는 침략선들의 어지러운 폭음을 누르며 망망한 대해에 울려 퍼진 배고동 소리

비약하는 조선의 건설대진이 원수들의 전쟁소동을 바다 한가운데 수장해버리는 소리 장쾌한 열병대오와도 같아어라 차관가득 강재를 싣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달리는 청천강용사들의 기세충천한 자동차행렬

그것은 1,000여리에 도도히 굽이치는 청천강의 흐름이었나니 믿음과 축하의 그 긴긴 연도에서 용암처럼 끓던 돌격대원들의 심장 억척불변의 그 신념을 청천강전역에 글발로 새기었어라 -한별의 노래 높이 시작한 우리 혁명

김정은동지의 찬가로 승리하리! 불변의 진리를 글밭은 웨친다 무슨 힘으로 우리 혁명이 승리하는가를 이 땅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대원수님들의 정의 강, 사랑의 강 우리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들린 락원의 강 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그 품에 마를줄 모르는 행복의 시원을 둔 영원한 영원한 인민사랑의 강이여

2 유구한 세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운 청천강 약동하는 벚찬 이 시대와 더불어 너 이제 자랑하게 뵈 이름도 많아라 전기강, 보배강 락원의 강, 애국의 강

그 빛나는 이름들을 안아올리며 물속에서 눈보라속에서 흘러온 격전의 나날이여 이 강변의 조약돌 하나를 안고서도 내 말할수 있으리 그 수많은 위훈의 이야기들을

청천강용사들의 군산인양 감성을 띠고 거연히 치솟은 저 언제기둥을 부여안고도 내 노래할수 있으리 그 불리는 심장의 애국에 대하여

하나 먼저 노래하고싶구나 저 강기슭 언덕에 돌격대원들이 꾸러놓은 목포장 푸르려 설매이는 한그루 이빨을 소중히 안고

빛갈조차 보이지 않는 청석암반 -우리의 전투계획은 최고사령관동지께 심장으로 다진 맹세다 강바닥을 다 들어내서라도 청석암반을 기어이 찾아야 한다 이 5일 낮 5일 밤에!

결사대장의 불같은 웨침에 피출선 주먹들이 창공에 쏘는다 격전개시의 포성마냥 강반을 뒤흔 드는 《발걸음》노래소리

기쁨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고싶은 노래 부르면 힘이 솟고 용기백배하여 나가게 하는 신념의 노래 청천강전역의 주제가여

그 노래속에 해가 솟고 별이 들었다 불꽃 튀기는 매질소리 썩어나날 날리는 착안의 돌가루 썩바위에 강철이발을 들이박는 굴착기들의 동음속에 낮을 이어 불리는 밤

삶은 감자 손에 쥐고 쪽잡에 들지 언젠 병실을 찾은 대원이 있었던가 지원원던 인애와 자식들마저 격전의 불도가니에 뛰어들었으니 백천이 한 뜻에 동진 신념의 불덩이!

강철이었던가 이들이 강철도 그속에선 꺾이였으리 삶의 고귀함을 충정의 환골에서 찾는 그들은 강철보다 굳센 김정은장군의 전사들

끝끝내 청석암반이 드러난 순간 어인 일인가 전투장에 흐르는 고요한 정적 즐긴한 함성도 찾아들고 이런 때 옛으리 라던 환희의 폭풍도 서로 열싸우는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이든 좀 하려마 청석암반을 찾지만 하면 그우에서 팡팡 떡을 치렀다던 북청치녀야 어서 속사철을 펼치려마 기쁨에 겨워 만세를 터칠 그 모습들을 그리겠다면 소대의 막방이야

어디선가 호느낌소리 말없이 얼굴을 돌리는 사나이들 주인인들 보시인들 이토록 소중히 끌어안으랴 그 어떤 값진 재부에 비길수 있으랴

청천강전역의 그 투쟁이야기들을 대견하게 보아도주시리 생활방식도 투쟁기풍도 빨찌산 식으로 어깨우에 명장은 없어도 원수님 병사로 사는 장한 그 모습 들을

구만리 하늘가에 은하수 흐른다 사무치는 그리움 쌓으면 하늘에 닿으리니 사람들이여 우리 함께 오르자 언젠건설장에서 수백리나 먼곳 전투장에 통나무를 포탄처럼 쏘는

맑은 날도 해빛이 실날처럼 새어드는 이 밀림속에서 제일 기쁨 때는 원수님 소식이 실린 신문을 받아 볼 때라고 눈물이 글썽해 말하는 처녀돌격대원

쉽없이 쏟아져내린 장마비로 강물이 범람하고 길이 끊어졌을 때 사슴치는 물결을 헤가리며 신문을 안고 지휘관들이 왔다 텔레비전위성중계가 왔다

밀림속 커를집지붕우에 태양빛전지판을 얹고 텔레비전을 켜는 그 순간 그처럼 밝고싶던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

격정에 목매어 터치는 웨침 아, 원수님! 우리 원수님! 해가 솟았다 천고의 밀림속에 태양이 솟았다 하늘엔 비구름이 아직 무거워도 백산밀림에 밤에도 지지 않는 해발이 넘쳐라

오, 그 품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모습같은 이 그리움 오직 원수님 품으로 향한 이 신념의 대하를 힘준산악이 막아설수 있다더나

억척불변의 그 신념에 받들려 충성 언제들이 솟구치는 강굴기를 따라 수백리 불보다 뜨거운 땀과 열정이 대하를 이룬 강

이런 그리움 이런 신념을 지닌 심장들이 청천강변에 언제를 만들어올렸다 원수님 그 품에 운명의 숨결을 얹고

가슴에 굼는 피는 더욱더 굼었어라 청천강이 내뿜는 전기가 흘러 더욱 밝아질 집집의 창가 인민의 웃음꽃이 더욱 만발할 유원지

오, 그날에 바라보는 우리의 매일은 얼마나 더 휘황할것이나 그이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숨을 쉬어도 원수님의 뜻으로 숨을 쉬는 청천강 용사들

그이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 나니 보라 달리는 걸음에 박자를 가하고 박자를 가한 걸음에 나래를 달았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로 온 전역은 그대로 불도가니 참다운 애국도 당정책옹위전도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 그 길에 있다는 불변의 의지

청천강전역의 숨결이 되고 맥박이 되었나니 사람들이여 청천강전역의 발전소와 발전소 들이

이런 그리움 이런 신념을 지닌 심장들이 청천강변에 언제를 만들어올렸다 원수님 그 품에 운명의 숨결을 얹고

오늘은 결사관철의 대오 결전의 그날 역세인 그 손들에 총을 쏘던면 최후의 돌격로 앞장서 내달릴 승리의 정예군단

청천강이여 원수님을 우러러 불리는 청천강용사들의 그 뜨거운 심장을 거켜 즐기게 흐르라 영원히 노도치라

3 맑고 푸른 물결우에 그림처럼 일떠서는 언제들 산세들만 우뚝던 청산계곡에 깃을 치며 날아드는 물새들 벌써 완공의 그날을 부르는가

충천하는 화광은 강물을 물들이는데 거연한 언제를 성벽처럼 떠이고 붉은기둥이 정렬한 대오

포연탄우를 헤쳐온 화선용사들 인가 물탈물은 가슴마다 빛나는 구리빛 단추도 위훈의 훈장처럼 번쩍이는 밤 12시

눈휘는 가슴들을 쟁- 열어제끼며 구명소리 울린다 -치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계시는 경양하늘을 우리리 경례!

순간 이름 못할 크나큰 격정이 온 대오를 휘감았다 눈굽은 저도 물레 찌밧이 젖어 들고

심장과 심장이 세차게 고통쳤다 승리를 새겨온 피리는 낮과 밤 결사의 나날들을 소중히 그리안고 격연으로 못박힌 손들이 일시에 오른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땀땀하게 오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청천강용사들은 진승의 날이 빛나는 7월 전투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만세! 만세! 하늘땅을 뒤흔들며 청천강전역에 메아리치는 승리의 만세소리 돌격대원들의 두볼에 흐르는 불같은 격정의 눈물이어

무엇이 다르랴 돌격대기발을 굳기처럼 날리며 사슴치는 물속에서 언제를 안아 올린 청천강의 용사들 불의 강을 헤쳐가던 락동강용사 들과

치웃아 붉은기 날리는 언제들은 승리한 싸움의 고지런듯 청천강의 돌격대원들은 준공의 보고, 최후승리의 보고도 이만큼 소리치려나

당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가 교육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자

참된 주인은 언제나 만족을 모른다

주인이 되는 쉬워도 주인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보통의 노력으로는 주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더라도 나라의 모든 기관, 기업소 일꾼들이 후대교육사업을 함께 책임진 학부형, 주인의 역할을 다하려던 과연 어떤 자세와 관점으로 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자강도검찰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찾아본다.

자강도검찰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필요한것을 학교에 보내준 이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는것인가. 그들에게는 도인의 학생이 결코 낯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어주시는 후대사망의 대화원을 더욱 탄탄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는 한층의 밀거름이 되려는 불타는 열의를 지닌 그들은 진정한 학생들의 부모, 학부형이었다.

이런 관점을 지녔기에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교육단위들을 도와줄 일꾼이 보였다.

강계제 1중학교만 놓고보아도 대단모서리가 떨어졌지만 눈이 걸려 죽어서는 안되고 세련된 것을 해결해오고 지붕물기를 하느라 고생하는 철반기어울러 구해주었으며 교원들의 얼굴에 비추는 속삭임처럼 알아보고 멀리 평북방면까지 달려가 생활상을 로를 풀어주었다.

어찌 이뿐이랴. 책임일꾼들이 앞장서 2, 1, 6 강계고등에 전문학교에 수많은 량의 현대적인 바닷건재와 도검감, 통나무 수심과 마련해주어 교사구리

평성시에서

최근 평성시에서 각급 중학교들과 소학교들, 유치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대 열풍이 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사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입니다.》

시책일꾼들의 책상우에는 그들이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는 류다. 문건이 매일같이 넘쳐나고있다. 시간의 일꾼들이 60여개의 교육단위들을 책임지고 꾸려주는 사업정형에 대한 자료들이다.

책임일꾼들은 그에게 기초하여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개관하는 교육단위들에 대한 자체 소비량과 재고량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교육의 현대화, 교원들의 생활조건 향상, 후천인재사양정형 등을 로해하고 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도 뒤도 안다.

은정고급중학교와 은정소학

형성안 하나를 놓고서도 며칠밤을 새워가며 토론을 거듭한 책임일꾼들.

이렇듯 책임일꾼들이 실천적 모범으로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기에 공사에서 기적이 창조되었다. 작품의 첫발을 박은 지 몇달만에 연건평이 100,000평을 훨씬 넘는 두개의 학교건물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올랐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평성시 중학교에서도 5층짜리 세교사가 덩실하게 일떠섰다. 수십개의 교실과 분과실들, 무용실, 회관으로 이루어진 세교사에는 책걸상, 교탁, 칠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그르흔데 갖추어져있다. 매 교실들의 난방을 독출하게 실현하였으며 벽면과 천장을 아늑한 감을 주면서도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여러가지 색으로 처리하고 복도, 단의 칸과 칸주를 특색있게 설치한것을 비롯하여 이채롭게 안겨오는 모든것은 책임일꾼들의 세심한 지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것이였다.

현재 시에서는 시간의 모든 유익한것을 주민지구에 보다 접근시켜 건설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또다시 전개하고있다. 이처럼 평성시의 일꾼들은 교육사업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본사기자 한 광철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요한 지방의 당, 국가 경제관 책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 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읍니다.》

언제나 자기 할바를 스스로 알고 일을 찾아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단위들에서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는 일꾼이라야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자강도검찰소 일꾼들의 사업을 놓고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언제나 강계제 1중학교를 찾던 자강도검찰소 소장 박영철동무는 무거운 결심으로 학교 청문회를 나섰다. 방금전에 우연히 문에 띄운것, 가방을 두개씩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제 101(2012)년 3월 어느 날이었다. 남포시정보통신국을 찾아 떠난 와우도구의 풍수유치원 원장 김해순동무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유치원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떠난 길을 이윽고 떠난 생각에 자꾸 갈마들었던것이다.

오랜 기간 후천단체로서 유치원이라면 받았고 뛰어다니던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정다운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인가는 유치원건조에 필요한 수많은 재재들을 해결해주었고 늦가을에는 여러의 겨울나이용식판을 실어다주었으며 또 언제인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량의 영양식품들과 남색도 차에 가득 실고 찾아온 그들이였다.

그는 좋아 돌아서고말았다. 유치원원장이 정문까지 왔다 가 댈일인지 그냥 돌아갔다다는 사실이 일꾼들에게 전해졌다. 즉시 전화를 걸어 사연을 알아

친혈육의 살뜰한 정을 담아서

지난 9월 교육지원 전사회장을 찾은 제 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은 상업성에서 전진한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십대의 최신형컴퓨터들과 기술사생들이 리용할 수많은 담요와 이불 그리고 수천개의 경질기구, 수천m의 실용승원파 여러의 원자재들...

하나하나가 다 장철구경양상업대학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성의껏 준비한 물자들이였다.

이곳 대학의 일꾼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후천단체에 대한 자량으로 시간을 쏟는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수많은 물자에서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담겨있는지 그는 아직 다는 못그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은 그들의 귀중한 보배들인것만큼 그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뜻깊은 전국교육일꾼대회를 앞두고 교육지원전사회장을 조직 하도록 한 항의 의도를 심어

정부를 담당하는 일꾼들과 정무원들

의 유혹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대학이 아니다. 후대교육사업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모두 정신을 바쳐 대학을 도와주십시오.》

책임일꾼의 호소에 성실일꾼과 정무원들은 한결같이 응호해나섰다.

이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회의에서 토의된 지원물자들을 제때에,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었다. 성에서는 그 집행정형을 수시로 총화되고 하나라도 더 좋은것으로 마련해주기 위하여 애썼다.

국장 차장동무들은 먼 출장길에서도 대학교육에 도움을 주는 참고도서들을 얻어와서 애써 노력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기술사생들을 위해 200개의 이불을 성의껏 마련해주었다. 뿐만아니라 이곳 일꾼들속에서는 아름다운 사생들이 수없이 꽃피었다. 이렇게 마련된 하나하나의 교육지원물자들을 가지고 리석철, 추금동무들은 바쁜 한 정무원들은 전사회장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성일꾼들의 전진적인 노력에 의하여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진정

남포시정보통신국 일꾼들과 종업원들

본 국장 조명일동무는 다음날 여러명의 기술사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찾았다.

《원장 선생님, 우리가 아직 구실을 다하지 못한것 같습니

친혈육의 살뜰한 정을 담아서

상업성의 일꾼들과 정무원들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수많은 물자에서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담겨있는지 그는 아직 다는 못그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은 그들의 귀중한 보배들인것만큼 그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뜻깊은 전국교육일꾼대회를 앞두고 교육지원전사회장을 조직 하도록 한 항의 의도를 심어

정부를 담당하는 일꾼들과 정무원들

양덕군산림경영소에서

양덕군산림경영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더 많은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성의를 다한 바지를 신은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종자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애국의 맘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빨리 실현하자면 나무모와 종자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재인 리석철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종자를 채취할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잣나무종자채취를 위해 한달전부터 준비를 비롯 없이 하고 청년들을 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외딴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유민원들은 재송림에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종자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종자채취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쏟았다. 잘 여문 종자를 채취할 수 있게 시기를 바로 정하도록 기술지도도 짜고있었다. 이와 함께 종자채취를 하면서 나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대책을 세웠다.

본사기자 리 건 일

미덕의 화원에 피어난 꽃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직동석고광산 혁신쟁 로동자 정은실동무

우리의 생활은 해서 아름다 운가. 무엇보다 하여 우리 인민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더 빠른 페이스를 그토록 확신있게 믿고있는것인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름답다. 서로서로 위하고 아껴주며 흘러가던 광산사람들의 생활에 큰 파문이 일어난것은 지난해 5월부터였다. 광산종업원의 아들인 리충일동무가 군사임무수행 중 심한 부상을 입고 제대되어 왔던것이다.

그 소식을 한일 투입 건너 광산에 파다하게 퍼진 날 혁신쟁 광부들도 리충일동무의 집을

소중한 청춘의 사랑

소중한 청춘의 사랑

지난 2월 어느날이었다. 《영애군의 결에서 그를 거들어주고 치료도 해주는 방조자가 있으면... 건강회복도 더 빠르겠는데...》

그의 말이 웅성인지 처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정은실동무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는 참다운 동지로서의 대우에 감사해하고 있었다.

남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여기며 자기의 진정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들의 신상에 들어닥친 일을 두고 잠 못 이루며 밤이 깊도록 뛰었다. 그는 그들을 심장으로 품어다 주는 것은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설자라는 파연이던 것이다.

그의 가슴은 알지 못할 총동으로 높뛰기 시작하였다.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앞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리충일동무의 모습이 떠올랐고 밤이면 그가 먼저 의사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루종일 그는 리충일의 모습을 보고나면 저 도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날이 갈수록 그는 조국보위의

첫 번째 충격

첫 번째 충격

《광산에서 영애군의 가장 새 줄이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

다. 우리 청년들이 영애군을 위한 일에서 뒤지겠습니까.》

이런 모임, 이런 호소는 매일 같이 진행되었고 앞을 다투어 많은 사람들이 영애군과 그것 가정을 돕는 일에 발벗고나섰다. 그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정은실동무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뜨거워졌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매일저녁 정은실동무는 학습의 한오십에 있는 의사와 발걸음을 걸었다. 리충일동무의 치료를 위하여 그의 집을 찾아가는 너의사의 길동무를 해주며... 그 날에 정은실동무는 많은

두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

아직은 첫걸음을 댄 광산에서 세기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 많은 문제들중에서 증시되는 문제의 하나는 리충일동무의 건강회복문제였다.

어느날 혁신쟁 당세포비서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 리충일 동무의 건강회복문제에 또 토의되었소. 머리카락의 후유증을 없애려면 아직 많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 영애군을 도와 일꾼들이 우리 정에서 적극 도우십시오.》

그 다음날 광산청년동맹원들의 모임에서도 영애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울렸다.

초 번째

초 번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직동석고광산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

광산의 첫 개척자들이 깊은 산중에 천막을 전개한것은 몇해 전이었다.

모든것을 빈터에서 시작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전열을 건설하고 생산마음을 일떠세우며 석고광맥을 타고갔다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련합기업소적으로 증시하는 바로 이곳에 석회석광산에서 압축기운전으로 일어난 정은실동무가 탄생했다.

《당의 뜻을 꺾어주는 길에서는 언제나 앞자리에 서야 한다.》

석회석광산의 로력혁신자인 아버지께서 하시던말 하시던 말이 정은실동무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았던것이다.

그는 광산의 혁신쟁 운반공으로 배찌받았다.

집든 짐을 떠나 광산으로 달려온 은실동무는 갱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곤진히 위해주었다. 어려울때이지만 생일상도 푸 집히 차려주었고 명절날, 휴식일이면 저마다 자기 집으로 짚

양덕군산림경영소에서

양덕군산림경영소에서

지금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더 많은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성의를 다한 바지를 신은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종자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애국의 맘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빨리 실현하자면 나무모와 종자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재인 리석철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종자를 채취할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잣나무종자채취를 위해 한달전부터 준비를 비롯 없이 하고 청년들을 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외딴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유민원들은 재송림에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종자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종자채취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쏟았다. 잘 여문 종자를 채취할 수 있게 시기를 바로 정하도록 기술지도도 짜고있었다. 이와 함께 종자채취를 하면서 나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대책을 세웠다.

본사기자 리 건 일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쓰차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전철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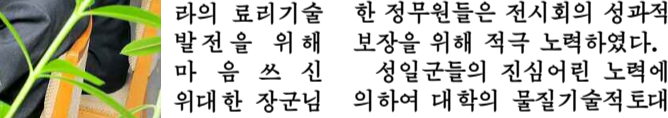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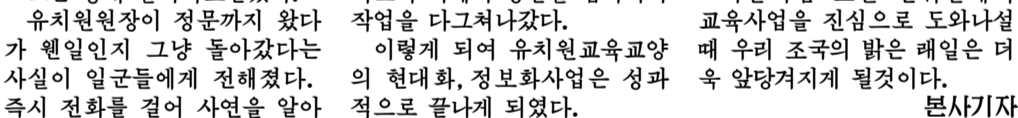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쓰차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전철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



이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민을 위하여 복무함!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쓰차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전철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쓰차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전철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쓰차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전철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

대화 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말장난

요즘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고위급 접촉문제를 계속 입에 올리며 설레발을 치고있다. 그들은 북남고위급접촉 합의를 《반북한 한 번》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북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와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회색을 늘어놓고있다. 한편 북남관계의 현 긴장상태와 관련하여 저들에게는 《알 수가 없다.》고 여론을 오도하는가 하면 《북에 선물을 주듯이 할 수는 없다.》는 가스론을 말발도 늘어놓고있다. 실로 뻔뻔스럽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피괴배양이 북남고위급접촉과 관련하여 이러저러기름거리며 대화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완전한 현실의 폭이며 책임회피를 위한 기만선동이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우리 총정칙국장일행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태는 우리의 정의와 인민족의 기대와는 심히 어긋나게 흘러갔다. 남조선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악랄하게 훼손하는 반공화국배라살포란들이 공공연히 계속되고 지어 집권자까지 나서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당발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피괴군부패당은 조선시대의 남북상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엄중한 총정칙을 면하여 일으킴으로써 국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날로 위악으로 치닫는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사이의 긴급접촉

도 남측의 무성의와 도전적자세로 하여 끝내 결렬되고말았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어떻게 북남고위급접촉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천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피괴들의 수작집은 뒤가 쟁기자들의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편이 감행된 인간스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란들이나 군사적도발들은 피괴당국의 막후조종과 고도의 조직적 계획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앞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을 약속하고 뒤에 돌아앉아서 조국을 반역한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악랄하게 훼손하는 배라살포란들을 부리게 하고 그것을 《사물적 판단》이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따위의 당치않은 구실로 적극 뒤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피괴군부패당의 총정칙도발도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극우보수세력의 흉악한 음모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진정성》이라고 하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대화의 락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비린칭을 돌구고있으니 이 얼마나 낮가죽 두꺼운 자들인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의 현 과국상태를 애써 부정하면서 《대화》나발을 불어대는 데는 모처럼 마련된 판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한 책임을 모면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흉계가 잘려졌다.

지금 피괴배당은 《대화》에 대해 뻔뻔하게

일 떠들어대면서도 우리에게 대한 비방 중상을 그치지 않고있다. 《도발과 유화의 이중적자세》니 뭐니 하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온갖 정의와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를 터무니없이 절고들고있으며 《북핵위협》말발을 제치며 나중에는 우리 공화국의 병진로선까지 헐뜯고있다.

북남관계 개선과 철저히 담을 쌓고 대화 분위기에 열을 올리는 이런 대결 망신자들이 《대화》니 뭐니 하고 노숙을 부리는 것은 그야말로 등치고 배반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대화》간판을 내리고 여론을 오도하면서 반공화국도발책동에 기승을 올리려는 피괴배당의 광만적적술책을 추호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극도로 달한 현정세하에서는 대화를 골백번 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대결의 폭탄 더욱 깊어지게 할뿐이지 북남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북남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대화에 힘입는 링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링장에서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서로 힘을 합쳐 북남관계 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것을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구태의연한 대결정세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기회에 그것을 한사코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북남당국자들이 인천에서 만났던 것을 계기로

조성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얼마 못 가 사라지게 된 원인으로 바로 거기에 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것들을 내리고 계속 불순한 야망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현 과국상태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으며 대화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이게 될 것이다. 대화에 앞서 동족대결정책부터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반공화국배라살포란들을 비롯한 온갖 정치군사적대결행위를 전면 중지하여라 한다.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군사적도발을 일삼으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을 놓고 누가 그것을 《성실하고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보겠는가.

지금 북남관계는 증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조성된 일정한 사태는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결단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남조선에서 대화상대방을 자국하고 열등도 군사적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행동이 계속된다면 결국 북남관계의 대등으로 고사하고 겨우 열린 오솔길마저도 끊기게 될 판이다.

북남대화의 운명은 남조선당국자들의 행동여부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와 민심의 요구를 똑바로 알고 북남대화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

최철순

불는 불에 키질하는 무분별한 도발

지금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비호와 부추김을 받는 인간스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란으로 하여 국도의 과국으로 치닫고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피괴군부패당들은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 북남관계 과국을 더욱 조성하고있다.

지난 10월 7일 조선시해 서남해상수역에서 피괴호전함들이 우리 함정에 총포사격을 가함으로써 군사적충돌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좋은 소식만을 고대하던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호전함들이 이에 그치지 않고 18일과 19일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 군인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대었다. 결과 쌍방사이에 총격전이 또다시 벌어졌다. 피괴호전함들의 총격진도발은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격의 무분별한 망동으로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북남관계를 전황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이번에 피괴들이 총격전을 일으킨 지역들은 지난 시기 북남사이의 무장충돌이 뻔뻔하게 발생하던 곳들이다. 피괴들은 이 일대에서 무장도발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그것을 기회로 전쟁의 불길에 타지려고 미친듯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총격진도 북남대화의 흐름을 파괴하고 정세를 국도로 긴장시키기 위한 피괴군부패당자들의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다.

이번에 피괴군장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불질을 해대지 않았더라면 예상 쌍방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나지조차 않았을 것이다. 불붙은 저들이 하고 도리어 편에서 그 누구의 《도발》이니, 《광민정》이니, 《이중성》이니 하고 악정을 돌구는 피괴배당의 망동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처사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치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최근의 총격사건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거짓이고 빈말이며 그들이 추구하고있는 것은 오직 대결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스스로 내뱉은 소리를 완전히 뒤집고 사흘도 못되어 불질을 하며 군사적도발에 광분하였는가.

지금 북남사이에서 중요하건든 판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다. 북남관계 개선을 이, 최악의 과국이나 하는 증대한 갈림길에 놓인 현 시점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적대행위가 어떤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나쁜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반공화국배라살포란들을 멀리하고 군부패당들을 거둬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내몰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2중 3중의 북남관계 파괴책동이 낳은 것이 결국 군에 발생한 총격사건들이다.

남조선피괴들의 총격진도발은 매우 위험한 판이다. 지금과 같은 참에 현 정세하에서 피괴군부패당들의 고의적인 군사적도발이 북침 전진정책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반공화국배라살포란으로 가득이나 대결로 치닫는 북남관계에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 완전히 파괴하려고 발광하는 피괴배당의 망동은 그들이 늘어놓는 《대화》라탕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파렴치한 것인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세악화와 북남관계 과국의 책임은 피괴호전함들에게 있다.

남조선당국은 거듭되는 군사적도발이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영영 망쳐놓고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과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과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라설하

군국주의야망은 절대로 숨길수 없다

얼마전 일본에서 극우의정계들과 각료들의 집단적인 야스쿠니진자참배놀음이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 17일 일본당국자가 야스쿠니진자에 제물을 보낸 데 이어 1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무리로 찾아왔다. 그뒤를 이어 총무상과 국가공안위원장 등 내각의 고위각료들도 저마다 제물을 봉납한다. 진자를 참배한다 어떤가 하면서 분주함을 피했다.

일본분자들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진자참배놀음을 벌인 것은 스킨보복 없는 움직임이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야스쿠니진자는 국제적인 초점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야스쿠니진자에는 해외침략의 길에 나섰다가 죽은 수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어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나타라들을 침략의 마수를 뻗치었으며 인민들에게 해어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지금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타라들은 강제전쟁, 자원침탈, 일본군성노예만행 등 일제가 저지른 과거죄행에 대한 괴팍한 원한을 품고있다. 이로부터 국제사회의 일본분자들의 야스쿠니진자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일본분자들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지난 시기 일본정권체제의 야스쿠니진자참배가 아시아나타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피하여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온 것도 바로 이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일본분자들은 뼈저티 야스쿠니진자를 참배하고있으며 더욱 광기를 부리고 있다.

각본을 자아내는 것은 일본정권체제 총독에서 저들의 야스쿠니진자참배를 정당화하며 비호하고있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야스쿠니진자에 무리로 몰려간 일본우익분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제책이었던 그 단상설레이었다.

만일 일본분자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야스쿠니진자참배와 같은 군국주의망명을 되살리는 행동을 계속하며 군국화되어 간다면 그것은 끝자멸의 길을 걷는 길이다.

하여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해외침략에 나섰다가 죽은 군국주의판신자들의 《대》를 심어 줌으로써 앞으로 칼을 빼들고 제철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려 하고있다.

자라난 세대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일본분자들의 교활한 군국주의야망은 절대로 숨길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야스쿠니진자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일본분자들의 야스쿠니진자참배는 재침을 위한 전주목이다. 제야스쿠니진자참배놀음을 전면부정하며 역사교과서에서 피비린내나는 과거력사를 삭제하고 하여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지워버리지도 않고 약화될 수도 없다. 일본분자들이 전범자들을 《애국자》로 찬미하며 야스쿠니진자참배를 정제적인 행사로 전통화하려 할수록 군국주의야망을 노린 검은 속심이 더욱 드러날뿐이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올해에 들어 일본분자들 속에서 이러한 망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로발되고 광판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들이 일본을 《교배풀린 군국주의마》, 《전쟁국가》 등으로 묘사하고있는 것도 일본에서 군국주의광풍이 지난 시기와는 대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세차게 몰아치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오늘 군국주의망명을 부르는 일본정권체제들과 내각각료들의 야스쿠니진자참배놀음은 국제사회의 신랄한 비난과 규탄을 불리일키고있다. 일본의 우익분자들이 무리로 야스쿠니진자를 참배한 것은 역사의 정의와 인류의 향상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과거범죄력사를 미화분식하고 일본사회에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현 일본정권체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할바를 하여야 한다. 과거침략력사를 옹호하며 대하고 깊이 반성하며 군국주의야망을 포기할 때만이 일본의 전도도 있게 된다.

만일 일본분자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야스쿠니진자참배와 같은 군국주의망명을 되살리는 행동을 계속하며 군국화되어 간다면 그것은 끝자멸의 길을 걷는 길이다.

미국의 《인권》소동을 강력히 규탄

조선의 인권정책에 관한 토론회 방글라데슈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방글라데슈공산당, 방글라데슈인공정치연구소 등에서 지난 14일과 21일에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방글라데슈공산당,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방글라데슈인공정치연구소 등의 인사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서 이 두 나라 자라트 아흐메드, 방글라데슈인공정치연구소소위원장 장. 자한기르 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있다고 하면서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문화적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전인민적 인 무료교육정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민족적 단합을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23일 수단민족대회당(쉬르당) 총대변에서 연설하면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나라의 모든 정치 및 무장세력들이 포괄적인 전민족적대회에 합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음모책동을 비난

이탈리아공산당 사회위원장 아야라로 사페르 라리자니가 22일 한 발언에서 이슬람교를 훼손시키려는 미국의 비열한 음모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이슬람교에 대한 위곡선전을 강화

로 씨 야정당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죄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인권》소동을 규탄하여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 《인권보고서》를 구실로 유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열을 올려도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인권》소동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정책을 다른 나라에 따라배우야 한다고 간주한다. 미국의 《인권》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오늘의 세계

기후변화생산지정에너지에 대처한

오늘 전력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이로 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력생산량을 늘이고 안정된 전력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멀망에로 즐달음치는 《제국》

현시기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패권지위를 상실해가고있다는 여론이 나르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는 한 회견에서 나라는 우리는 제국이 되려 하지 않는다. 제국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하면서 맥빠진 소리를 하였다. 그의 말이 위선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현 처지를 반영한것만은 사실이다. 전쟁마당에서 허우적거리는 미국을 제국으로 불렀이 아니라 동맹자, 동반자로 보고 저들의 침략정책에 합세해서나서줄것을 강요하는 교활한 술책이 비견되는 말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미국의 현 국력은 쇠잔한대로 쇠잔해가고있다. 미국의 힘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반대전략》은 자체의 국부할 수 없는 모순과 난제로 하여 파산의 운명에 처한 상태이다. 미국의 《반대전략》은 반대편의 병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그것을 저들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추종세력들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저들의 기대대로 일이 되지는 않고있다.

그 처지가 오죽 가혹했으면 케리가 이제는 선임행정부의 정책들을 비난해내고있었다.

미국이 《반대전략》을 반대편의 병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그것을 저들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추종세력들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저들의 기대대로 일이 되지는 않고있다.

그 처지가 오죽 가혹했으면 케리가 이제는 선임행정부의 정책들을 비난해내고있었다.

기후변화생산지정에너지에 대처한

오늘 전력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이로 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력생산량을 늘이고 안정된 전력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기후변화생산지정에너지에 대처한

오늘 전력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이로 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력생산량을 늘이고 안정된 전력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기후변화생산지정에너지에 대처한

오늘 전력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이로 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력생산량을 늘이고 안정된 전력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기후변화생산지정에너지에 대처한

오늘 전력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이로 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력생산량을 늘이고 안정된 전력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기후변화생산지정에너지에 대처한

오늘 전력생산량을 늘이는 것은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이로 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력생산량을 늘이고 안정된 전력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 가서 지금과 같은 전력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에 가서 세계인구의 30~4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하여 가물현상